

지난 2011. 12. 31 일자 중앙일보에 게재 된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종교적 질문에 대한
천주교 차동엽 신부님의 대답을 보며 개신교 목사로서
드리는 대답:

그 분이 타계 한 달 전에 천주교에 질문한 24개항의 종교질문은
24년 만에 공개된 것으로 그 모두가 정당한 질문들이며 그것은 그
분 만이 아닌 모든 인류가 가지는 질문으로서 성경은 그 모든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주고 있다.

※이병철 회장의 질문은 원본을 복사해 그대로 실습니다.

한자 표기는 읽기 쉽게 『가』 안에 음을 달았습니다.

1. 神(하느님)의 存在(존재)를 어떻게 證明(증명)할 수 있나?

神은 왜 자신의 存在를 똑똑히 들어 내 보이지 않는가?

차동엽 신부: “신은 자신의 존재를 사람이 아는 방식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허 정 스님: “불교는 인격적인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한다. 창조신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쓸데없는 망상에 지나지 않으며, 창조신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손형식 목사: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시는 분으로 인간들과는 그 존재방식이 다른 신이시고 영이신 분으로 절대 존재이시다. 자신을 들어내 보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역사 그리고 인간의 양심 등을 통해 분명히 들어 내 보이신다. 성경 로마서 1장 20절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신다.

2. 神은 宇宙萬物의 創造主라는데 무엇으로 證明할 수
있는가?
(신) (우주만물) (창조주) (증명)

*손형식 목사: 모든 우주 만물은 만원경을 들고 천체를 보거나 현미경을 들고 세포의 세계를 보거나 하나의 원리, 법칙, 질서, 파워/힘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 인격체의 창조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시는 분으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 분이 모든 인생들의 근본 아버지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

3. 生物學者들은 人間도 오랜 進化過程의 産物이라고
하는데, 神의 人間創造와 어떻게 다른가?
(생물학자) (인간) (진화과정) (산물)
人間이나 生物도 進化의 産物아닌가?

차동엽 신부: "신이 흠으로 인간을 빚었다는 말은 하나의 은유이다. 오랜 세월에 걸친 진화의 과정을 흠으로 빚었다고 표현한 것이다. 진화론은 창조론이란 더 큰 울타리 안에 포함된 개념일 뿐이다."

허정 스님: "불교는 진화의 최초라는 시간개념조차 설정하지 않는다. 최초라는 어떤 지점을 설정하는 것은 또 하나의 어리석음이다. 불교의 시간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이다(무시무중)."

*손형식 목사: 진화론은 우연을 말하고 이것은 가설이며, 창조론은 인격을 말하고 이것은 한 분의 작품임을 말 한다. 오늘은 대량생산 시대! 우리는 일반 제품들이나 자동차들이 생산라인에서 척척 나오는 것을 본다. 그 대량생산은 그 동안의 엄청난 시간과 과정,

기술과 지식, 능력이 축적되어 저서 대량 생산으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같은 논리로 말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예수님도 인정하셨음)--지금의 대량생산처럼 절대 능력으로 "있으라! 있으라!" 하셔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이다. 오랜 시간과 과정을 전제로 적자생존을 강조하는 진화론은 모순으로 차있으며 도리어 한 인격의 완전한 창조임을 인정할 때 대답은 간단하고 분명해 지는 것이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 믿음의 책 이지만 현대의 대량생산은 그것을 사실로 증명해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교제의 대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첫 사람 아담은 태아기, 발육기 등의 성장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인으로서 즉시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창조하셨다. 다른 피조물들도 마찬가지 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분해, 분석하면 엄청난 역역의 시간과 과정, 지식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과학은 진화를 말하게 되는 것이다.

4. 인젠가 生命의 合成, 無病長壽의 時代도 可能할 것
(생명) (합성) (무병장수) (시대) (가능)
 같다. 이처럼 科學이 끝없이 飛達하면 神의 存在도
(과학) (발달) (신) (존재)
 否認되는 것이 아닌가?
(부인)

*손형식 목사: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에서 온 것이며 성경은 분명하게 죄인 된 인간을 향해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선포하며 그 후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영생과 영벌로 나뉘게 된다고 말씀 한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도리어 성경이 사실이며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고 있으며 수많은 과학자들, 지성인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있다.

5. 神은 人間을 사랑했다면, 왜 苦痛과 不幸과
(신) (인간) (고통) (불행)
 죽음을 주었는가?

허정 스님: "인간의 고통과 불행은 스스로 만든 것이다. 인간의 자업자득이다."

*손형식 목사: 불순종에 의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온 것이다. 관계의 단절은 교제의 단절, 공급의 단절, 능력의 단절을 가져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에서 온 결과이다. 그러나 영이 회복되면 육이 회복된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다.

6. 神은 왜 惡人을 만들었는가?
(신) (악인)
 예: 히틀러나 스탈린, 또는 갖가지 凶惡犯들.
(예) (종악범)

*손형식 목사: 하나님이 악을 만든 것이 아니다. 악의 기원은 마귀이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기 때문에 악인이 나타났다.

7. 예수는 우리의 罪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죄)
 우리의 罪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罪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허정 스님: "죄를 지을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고 죄를 지으면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 이것은 신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손형식 목사: 죄는 불순종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자유의지는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동산에 두신 것이다. 나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의미로 이것만은 먹지 말아 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였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자신의 자유의지와 뱀/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어버렸으며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게 된 것이다. 이 불순종이 죄이다. 이 죄는 값을 지불해야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이 복음이며 이것을 믿는 것도 자신의 자유의지의 결단에 달렸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끝까지 존중해 주신다.

8. 聖經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성경)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證明할 수 있나?

(증명)

*손형식 목사: 성경은 1500여 년 동안, 40여명의 하나님을 만난 자들, 천국을 경험한 자들이 기록한 책이며 오늘의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어느 노벨수상작품도 흉내 낼 수 없는 영감으로 가득 차 있는 영적인 계시의 책으로 “과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항복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성,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예언성, 그것이 성취된 역사성,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려주는 교리성, 그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내재성이 분명한 구원자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말씀이다.

9. 宗教란 무엇인가?

(종교)

왜 人間에게 必要한가?

(인간)

(필요)

차동엽 신부: “벼락이나 천둥이 칠 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신을 찾는다.”

허정 스님: “종교를 초월적인 절대자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이라면,

불교는 종교라고 말할 수 없다. 궁극적인 행복인 열반은 믿음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손형식 목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는 본능이 있고 이 본능을 체계화 한 것이 종교이다. 생이별한 아기가 엄마를 찾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본능이며 이 본능에서 종교가 나온 것이다.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는 본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 계시고 영생과 천국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

10 靈魂이란 무엇인가? (영혼)

차동엽 신부: “물질계를 초월하는 생명현상, 그게 영혼이라는 거다. 영혼이 제대로 작동할 때 우리는 본래의 인간에 더 가까워진다.”

허정 스님: “‘변하지 않는 영혼’이라는 생각도 ‘신이 있다’는 생각도 사실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손형식 목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격체이며, 흠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영원불멸의 존재이며,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은 살아있는 생명! 이것이 우리 인간이다. 따라서 영혼이란 이러한 인격, 생기, 그리고 각자의 자유의지 등이 합쳐진 영적 결합체를 말한다. 그렇기에 각자의 영혼은 다르며 또한 영혼은 영원한 것이다.

11 宗教의 種類와 特徵은 무엇인가? (종교) (종류) (특징)

*손형식 목사: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는 이 본능 때문에 나름대로의 종교들이 있고 마귀, 귀신의 역할로 영적세계의

혼란함이 있으나 분류해 본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영생을 찾아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종교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 다르며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계시, 즉 기독교는 계시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 특징이다. 자연, 역사, 인간의 양심 등에서 일반적인 계시를 찾을 수 있으나 성경 66권은 완전 계시로 그 안에 계시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12. 天主教를 믿지 않고는 天國에 갈 수 없는가?
(천주교) (천국)
 無宗敎人, 無神論者, 他宗敎人들 중에도 착한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종교인)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차동엽 신부: "천주교의 처음 입장은 타종교에 거의 구원이 없다는 입장에서 지금은 타종교의 구원의 여부는 신이 결정할 문제이며, 우리는 모른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허정 스님: "불교는 천상세계의 락을 설명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는다. 그 세계도 윤회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윤회는 자신의 행위의 인과응보로 결정된다. 신이나 절대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손형식 목사: 이 질문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로 바꾸어서 설명한다면--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양성이신 그분이", 그 자격을 가지고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것을 나 때문이라고 믿고 고백해야만 그 피가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 피를 내 것으로 믿지 않고는 죄 사함의 방법이 없다. 따라서 천국에 갈 방법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친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착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다. 아들을 보내시어 죽이기까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랑을 나타내신 이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은 것이다(요한5:24)

13. 宗教의 目的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종교) (목적)
 왜 天主教만 第一이고, 다른 宗教는 異端視하나?
 (천주교) (제일) (이단시)

차동엽 신부: "다른 종교의 구원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평소에 오직을 강조하는 사람이 광신도가 될 소지가 많다. '오직 믿음'도 위험하다. 지나치게 과학을 경멸하는 창조교리를 내세우는 종교는 고등종교가 아니다."

허정 스님: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이고 모든 종교는 행복을 추구한다. 불교의 최고의 행복은 열반이며 이것은 깨달음이다. 각 종교가 추구하는 행복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손형식 목사: 신앙의 진정한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다. 이것은 인간의 죄를 전제로 한 것이기에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약속이며, 능력이고 지혜이다. 다른 종교에는 십자가, 믿음, 죄 사함, 구원, 영생의 복음이 없다.

14. 人間이 죽은 후에 靈魂은 죽지 않고, 天國이나
 (인간) (영혼) (천국)
 地獄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지옥)

허정 스님: "불교는 극락과 지옥도 윤회의 과정으로 본다."

이만희 씨(신천지): “사람이 죽어서 하늘의 천국가는 것이 아니다.”
 “ 내(이만희)가 지금 음부에 있는 이병철씨가 회개하고 깨달아 구원 받기를 기도한다.... 나는 예수님의 대언자로 왔다.”

****손형식 목사:** 악한 인간이 악을 행하다가 죽고 그것이 끝이요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에도 그것은 불공평하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말해왔다.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고 말씀한다. 십자가를 믿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분명하게 갈라놓고 있다. 이것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만일 눈이 죄를 범케 하여 지옥가게 된다면 뽑아버리라, 손이 죄를 범케 하면 잘라 버리라!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신다(마태13:42-43)

5. 信仰이 없어도 富貴를 누리고, 惡人 중에도
 (신앙) (부귀) (악인)
 富貴와 安樂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神의
 (안락) (신)
 敎誨는 무엇인가?
 (교훈)

***손형식 목사:** 마귀가 예수님께 세상 왕국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고 유혹했다. 그러나 사실, 이 부귀와 안락은 일시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으로 인간의 욕심 탐욕으로 쌓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분쟁이 끝이 없는 것이다. 일시적인 것 때문에 진정한 것, 영원한 것을 놓치거나 빼앗기지 말라고 경고 한다.

16. 聖經에 富者가 天國에 가는 것을 驢(駱駝)가
(성경) (부자) (천국) (낙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바꾸었는데, 富者는
(부자)
 惡人이란 말인가?
(악인)

*손형식 목사: 성경의 주인공들에는 부자들이 많다. 하나님은 결코 부를 악으로 규정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오직 자신의 이익과 영화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다면 악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축복이 될 것이다. 이를 가리켜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고 하셨다

17. 伊太利같은 나라는 國民의 99%가 天主教徒인데,
(이태리) (국민) (천주교도)
 社會混亂과 犯罪가 왜 그리 많으며, 世界의
(사회혼란) (범죄) (세계)
 模範國이 되지 못하는가?
(모범국)

*손형식 목사: 복음으로,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 삶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현실적인 안타까움이다.

18. 信仰人은 때때로 狂人처럼 되는데, 共產黨員이
(신앙인) (광인) (공산당원)
 共產主義에 미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공산주의)

*손형식 목사: 미침의 대상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면 이것은 미친 것이 아니라 본질이다. 이 본질이란 하나님과의 회복과 영생을 말하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가지면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거기에 만 몰두하게 되기 때문에 미쳤다고 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

19. 天主教와 共產主義는 相剋이라고 하는데,
(천주교) (공산주의) (상극)
天主教徒가 많은 나라들이 왜 共產國이 되었나?
(천주교도) (공산국)
예: 폴란드 등 東歐諸國, 니카라과아 등.
(동구제국)

*손형식 목사: 천주교든 개신교든 신앙은 영적인 것인데 영력이 떨어지면 마귀의 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20. 우리나라는 두집 건너 教會가 있고, 信者도 많은데
(교회) (신자)
社會犯罪와 試鍊이 왜 그리 많은가?
(사회범죄) (시련)

*손형식 목사: 성도의 삶이란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손발로 연결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의 실패에서 온 것이다.

21. 로마敎皇의 決定엔 잘못이 없는데, 그도 사람인데
(교황) (결정)
어떻게 그런 獨善이 可能한가?
(독선) (가능)

*손형식 목사: 개신교에서는 따르지 않음. 도리어 복음은 독선이고, 독선이 되어야 함.

22. 神父는 어떤 사람인가? 왜 獨身인가?
(신부) (독신)
修女는 어떤 사람인가? 왜 獨身인가?
(수녀)

*손형식 목사: 타고난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데 개신교에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신이 성직자의 요구조건은 아니다. 도리어 건실한 가정을 이루어 헌신하는 것을 권한다.

23. 天主教의 어떤 団体는 企業主를 착취자로,
 (천주교) (단체) (기업주)
 勤勞者를 착취 당하는 者로 断定, 企業의
 (근로자) (단정)
 分裂과 파괴를 助長하는데 資本主義 體制와
 (분열) (조장) (자본주의 체제)
 美德을 否認하는 것인가?
 (미덕) (부인)

*손형식 목사: 단정할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것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문제들도 있지만 자본주의 체제는 귀한 미덕이나 탐욕을 절제하며 가난한 자, 고통 받는 자를 돌아보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건만 인간의 근본적인 부패 때문에 이 갈등이 끝이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다.

24. 地球의 終末은 오는가?
 (지구) (종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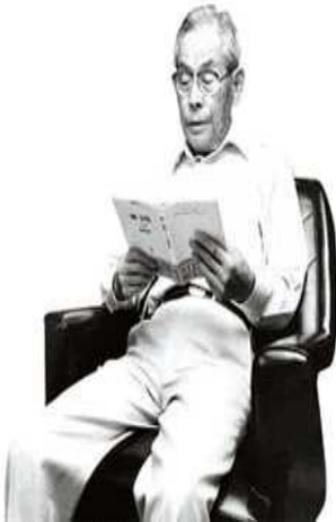
차동엽 신부: "내가 죽는 날이 종말이다. 역사적으로는 오메가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지구의 수명이 다하는 날이 올테니까. 성경에는 종말이 있다고 돼 있다."

허정 스님: "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의 한 순간을 지칭하여 끝 혹은 종말이라고 부른다.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나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만희 씨(신천지 이단): "지구촌에 종말은 오지 않는다. 부패한 시대가 끝이나는 시대적 종말이 반복될 뿐이다."

*손형식 목사: 그렇다. 분명히 종말은 온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서는 타락하여 죄와 저주 아래서 고통 받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는 역사를 마감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백성을 삼아서 천년왕국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셔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영광의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런고로 성경은 종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지구의 종말은 분명히 올 것이며 그 때를 기다리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여 모두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이병철 회장의 종교에 대한 24개 물음을 담은 질문지.
A4 용지 다섯 장 분량이다.

소책자를 펴면서:

오늘 이 시대를 말한다면 기독교 신앙의 위기, 복음의 위기, 교회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가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유일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완전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복음이 오염, 변질, 변색, 탈색, 혼합, 세속, 자유, 다원화 되어 성도들을 혼란 혼미케 만들고 있다.

고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은 한국 민족의 산업화를 일으킨 선견자답게 참으로 논리적이고 탐구적이며 영적인 갈증과 갈망을 간절함으로 표출한 모든 인류의 열망을 대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귀중한 질문에 즉각적인 대답을 받지 못한 채 고인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24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려서야 천주교 신부께서 대답을 내어 놓은 것은 이해 할 수 없었다. 또한 그 대답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가 이미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대답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성경 밖에서 대답을 인용하며 찾으려 하는 점도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그 대답 자체도 핵심이 분명치 않아서 불투명하고 초점이 흐린 점들이 있다고 생각되어 개신교 목사로서 일종의 영적인 울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24개 대답을 성경에 기초하여 내어 놓게 되었다.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유일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완전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도들이 확실히 알기를 기도한다.

필그림 교회 손형식 목사